

‘꿈의 예술단’ 모두 모여라, ‘꿈의 페스티벌’로 화합

- 8. 4.~9. 강원도 일대에서 ‘꿈의 페스티벌’ 개최
- 합동 캠프와 공연 진행. 대니구 바이올린연주자, 앰비규어스댄스컴퍼니 등도 참여

문화체육관광부(장관 유인촌, 이하 문체부)는 한국문화예술교육진흥원(원장 박은실, 이하 진흥원)과 함께 8월 4일부터 9일까지 강릉과 정선, 평창 등 강원도 일대에서 전국 ‘꿈의 예술단’이 모여 화합하는 ‘꿈의 페스티벌’을 처음 개최한다.

* 꿈의 예술단: 베네수엘라의 저소득층 아동·청소년을 위한 무상 음악교육 프로그램인 ‘엘 시스템아’를 한국형 문화예술교육 모델로 발전시킨 것

문체부는 아동·청소년 대상 문화예술교육 대표 브랜드인 ‘꿈의 예술단’을 지원하고 있다. 2010년 ‘꿈의 오케스트라’를 시작으로 2022년에는 ‘꿈의 무용단’, 올해는 ‘꿈의 극단’까지 그 지원을 확대했다. 유인촌 장관은 지난 7월 16일, ‘꿈의 극단’ 홍보대사 위촉식에서 “8월 초 ‘평창대관령음악제’ 직후 ‘꿈의 예술단 합동 캠프’를 열어 전국의 예술단원들이 교류하고, 세계적 예술가들에게 교육받으며, 서로 어우러져 공연하는 장을 마련하겠다.”라고 밝힌 바 있다.

이번 ‘꿈의 페스티벌’에서는 ‘예술로 하나 되는 꿈의 여정’을 주제로 찾아가는 공연, 해외예술가 초청 연수회, 합동캠프, 합동공연 등을 진행한다.

찾아가는 공연(8. 4.)을 시작으로 해외예술가 초청 연수회(8. 5.~6.) 진행

먼저 8월 4일, 강릉의 주문진 해변에서 지역주민을 대상으로 ‘찾아가는 공연’을 펼친다. 꿈의 오케스트라 ‘평창’과 꿈의 무용단 ‘강릉’의 아동·청소년 단원, ‘평창대관령음악제’의 평창페스티벌오케스트라 단원으로 활약한 청년 예술가 5명이 협업해 음악과 무용으로 구성된 다채로운 예술 무대를 선보일 예정이다.

8월 5일과 6일에는 무용 분야 유명 해외예술가(단체) 초청 연수회(워크숍)를 개최한다. ▲정선종합경기장 실내체육관에서는 독일의 모랄레스 컴퍼니(Morales company)가, ▲강릉의 꿈꾸는사임당예술터에서는 헝가리의 아코쉬 하기에(Akos Hargitay)가 사전에 모집된 무용에 관심 있는 전국 아동·청소년 100여 명을 대상으로 무용 수업을 진행한다.

합동 캠프(8. 7.~9.)에 바이올린 연주자 대니구, 앰비규어스댄스컴퍼니 김보람, 예술감독으로 참여

8월 7일부터 9일까지는 평창 용평리조트에서 ‘꿈의 오케스트라’와 ‘꿈의 무용단’ 중 14개 거점기관의 단원과 관계자 450여 명이 모여 서로 교류하고 우정을 나눈다. 합동 캠프 발대식을 시작으로 화합을 위한 교류 연수회, 예술을 통한 몰입과 즐거움을 일깨우는 예술통합 프로그램 등을 거쳐 합동공연까지 함께한다. 아울러 다양한 분야와 협업하며 모험적인 예술 시도로 많은 사랑을 받고 있는 바이올린 연주자 대니구와 앰비규어스댄스컴퍼니의 김보람 감독이 각각 음악과 무용 감독으로서 이번 여정에 동참한다.

‘꿈의 페스티벌’의 마지막은 합동공연으로 장식한다. 이번 행사에 참여한 ‘꿈의 예술단’ 단원과 예술감독이 모두 주인공이 되어 평창 알펜시아 뮤직 텐트에서 합동 캠프를 통해 배운 예술에 대한 몰입과 감각을 마음껏 표현할 예정이다.

‘꿈의 페스티벌’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진흥원 누리집(www.arte.or.kr)에서 확인할 수 있다.

문체부 이해돈 문화정책관은 “이번 행사를 시작으로 전국 ‘꿈의 예술단’이 서로 교류하며 성장할 수 있는 자리를 더욱 확대해 아동·청소년이 다양한 예술 분야를 접하고 창의적인 생각과 다양한 경험을 하도록 뒷받침하겠다.”라고 밝혔다.

붙임 1. ‘꿈의 페스티벌’ 포스터.

2. ‘꿈의 페스티벌’ 행사 개요

| | | | | |
|-------|--------------------|-----|-----|--------------------|
| 담당 부서 | 문화예술정책실 문화예술교육과 | 책임자 | 과장 | 김경환 (044-203-2761) |
| | | 담당자 | 사무관 | 김효진 (044-203-2766) |



더 아픈 환자에게 양보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가벼운 증상은 **동네 병·의원**으로



붙임 1 '꿈의 페스티벌' 포스터



붙임 2 <꿈의 페스티벌> 행사 개요

□ 행사 개요

- (콘셉트) 강원도 전역에서 펼쳐지는 어린이 예술 페스티벌
* 슬로건 : “예술로 하나되는 꿈의 여정”
- (일시/장소) '24. 8. 4.(일)~9.(금) / 강원도 평창, 강릉 인근
- (참여인원) 전국 꿈의 오케스트라·무용단 단원 등 1,000여 명

□ 주요 일정

| 8.4.(일) | 8.5.(월)~6.(화) | 8.7.(수)~8.(목) | 8.9.(금) |
|---|---|---|--|
| <찾아가는 공연> * 강릉 해변을 배경으로 펼쳐지는 대국민 대상 꿈오·꿈무 '비치 콘서트' ※ 대관령 음악제 아티스트 협연 | <해외무용가 워크숍> 1) 꿈꾸는예술터 연계 (강릉) with 모랄레스 컴퍼니 (독일) 2) 꿈의 오케스트라 연계 (정선) with 아코쉬 하기테 (헝가리) | <합동캠프> 및 <합동퍼포먼스> * 정상급 예술분야 아티스트 연계 몰입 워크숍, 마스터클래스 통한 합동공연 개최 - (오케스트라) 대니구 - (무용) 앰비규어스 댄스 컴퍼니 | |
|  강릉 해변(주문진) |  강릉/정선 |  평창 유스호스텔 |  알펜시아 |

□ <꿈의 페스티벌> 세부 프로그램

(1) 강릉 해변을 물들이는 <찾아가는 공연>

- (일시/장소) 8.4(일) 17:30~18:30 주문진 해변 솔숲 무대
- (주요내용) 강원지역 꿈의 오케스트라(평창)·무용단(강릉) 단원이 평창대관령음악제 영아티스트와 함께 만드는 여름 축제 공연

| 평창페스티벌오케스트라 청년단원 | 꿈의 오케스트라 '평창' (2016년 창단 / 45명) | 꿈의 무용단 '강릉' (2022년 창단 / 30명) |
|---|---|--|
|  |  |  |



(2) 무용 분야 저명예술가와 함께 하는 <해외예술가 초청워크숍>

- (일시/장소) 8.5(월)14:00~16:00, 6(화)10:00~12:00 / 강원도 강릉, 정선
- (주요내용) 무용분야 해외예술가 초청 워크숍 운영

| 강릉 꿈꾸는사임당예술터 | 정선 종합경기장 실내체육관 |
|---|---|
|  |  |
| 모랄레스 컴퍼니 (독일) <리듬에 맞춰 춤을!> | 아코쉬 하기테 (헝가리) <Let's Move!> |

(3) 꿈의 예술단이 예술로 하나되는 <합동캠프> 및 <합동공연>

- (일시/장소) 8. 7.(수)~9.(금) / 용평리조트 및 알펜시아 뮤직텐트
- (참여대상) 전국 14개 꿈의 오케스트라·무용단 단원 등 약 450명
- 주요 프로그램
 - (7일) 캠프 발대식, 단원교류 프로그램, 예술감독 아트대담
 - (8일) 예술감독(대니구/앰비규어스컴퍼니)과 함께하는 집중 워크숍
 - (9일/14:00~) 캠프 참여 단원이 함께 만드는 대규모 합동 무대

| 구분 | 내용 | 참고 |
|------------------|----------------------------|---|
| 오프닝 (14:00~) | 통영오케스트라 축하공연 개회사 및 인사말씀 |  |
| 합동공연 (~15:30) | 꿈오 졸업단원 x 평창대관령음악제 영 아티스트 |  |
| | 꿈의 오케스트라 x 대니구 | |
| | 꿈의 무용단 x 앰비규어스댄스컴퍼니 | |
| | 꿈의 오케스트라x꿈의 무용단 합동무대 | |